

4월29일 월요일

역대상 17장 여호사밧왕, 말씀에 대한 열정

본장은 유다의 제 4대 왕,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율법 교육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교육 사업인데, 이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7-9절)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

18장 여호사밧왕, 실패의 시작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지만, 성경은 그의 약점과 실패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결혼관계를 맺은 일입니다.(1절)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가장 큰 잘못이었고(21:6), 결혼관계 뿐 아니라 그는 아합과 그의 악한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제하였습니다(20:35). 그 치명적인 결과를 아들인 여호람과 요아스의 시대에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모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고 묵상해 봅시다.

19장 여호사밧왕,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개혁

본장 1-3절에는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왕에게 왕이 행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각각 알려주는데, 그 내용을 써 보세요.

1) 악한 일:

2) 선한 일:

20장 여호사밧왕, 아람과의 전쟁 및 행적

본장 35-37절에는 여호사밧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왕 아하시야(아합왕의 아들)와 교제하였고, 함께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해상무역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엘리세엘은 그 계획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나요?

4월30일 화요일

21장 여호람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1)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 역사에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6절에서,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는 말을 통하여, 여호사밧의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관계를 가졌던 것에 대한 결과물인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가 어떤 병이 들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22장 아하시야왕,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2)

여호람이 8년의 폭정 이후에 죽고,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도 사돈인 아합의 아들 요람과 동맹을 유지하였고,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한 아달라(아합의 딸)는 즉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멸하고 통치자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사밧이 부린 씨가 가장 극악하게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 유일하게 구출된 왕자는 누구였으며,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숨어 있었나요?

23장 아달라의 7년 암흑기, 7세 요아스왕의 등극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은 아달라가 왕가의 왕자들을 살육할 때, 왕자 요아스를 몰래 숨겨 도주시켰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달라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요아스를 성전에서 7년간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킨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24장 요아스왕과 제사장 여호아다

요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길러준 제사장 여호아다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길을 갔지만(2절), 여호아다가 죽자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아다의 아들 제사장 ()를 통해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요아스는 ()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5월1일 수요일 

25장 아마사왕,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본장에서는, 아마사 왕이 에서의 후손인 세일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 북이스라엘의 용병 십만을 은 일백 달란트로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이길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마사는 우쭐해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아 경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아마사왕은 하나님을 대충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2절 말씀을 써 보세요.

26장 웃시야왕, 강성하였지만 교만했던 왕

본장에서 웃시야 왕은 16세에 왕이 되어 52년을 통치합니다. 웃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7절,15절). 그러나 그가 ()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16절) (잘 될때, 잘 나갈때, 잘 풀릴때,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웃시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27장 요담왕

요담은 아버지 웃시야 정도로 정직하게 행했고(2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성전과 성벽 등 나라를 재정비하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을 걸었으므로, 점점 ()."

28장 아하스왕, 우상숭배와 타락의 절정

문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망령되게 행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셨습니다(28:19). 아하스는 징계를 받으나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열중함으로 더욱 범죄하였습니다.(23절) 24-25절에 기록된 아하스왕의 죄들을 찾아 써 보세요.

5월2일 목요일

29장 히스기야왕,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한 왕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영향으로 영적 타락이 극심할 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 1) 성전 청결-16일동안 (3-19절)
 - 2) 번제와 속죄제, 감사제를 드림(20-35절)
- 36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0장 히스기야 왕, 첫 유월절

본장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여년 전 이스라엘이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과 7일간의 무교절, 그리고 7일을 더 연장하여 절기를 지킨 예루살렘에 큰 ()이 있었고(26절), 기쁨의 축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으로 막을 내립니다. (27절)

31장 히스기야왕, 온 나라가 결단하고 순종함

히스기야왕은 30장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전반적인 종교 개혁을 이어갑니다. 절기를 통해 그들이 받은 은혜는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각자가 한 일을 적어보세요.

- 1) 백성들(1절):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함.
- 2)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2절):
- 3) 왕 (3절):
- 4)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 (5절):

32장 히스기야 왕의 기도

본장은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치러 온 사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 등을 기록합니다. 이렇듯 삶의 고비들을 넘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다고 기록하나요? (20절, 24절)

5월3일 금요일

33장 므낫세왕, 아몬왕

아버지 히스기야의 경건함을 조금도 닮지 않은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을 다 행합니다. 뒤이어 왕이 된 아몬도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크게 () 하여 기도하였으나(12-13절), 아몬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였습니다. (23절)

34장 요시아왕, 말씀으로 시작된 영적 개혁

8세에 왕이 된 요시아는 통치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게 되었고, 통치 12년에는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훼파된 영적인 기초를 복구하는 영적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성전에서 발견된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4-19절) 왕은 온 백성들을 모아 언약책의 모든 말씀들을 들려 주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33절)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 변화가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35장 요시아왕과 유월절, 마지막 죽음

본장에서 요시아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지킵니다(18절). 8세에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하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삶을 마치게 된 요시아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누가 슬퍼했다고 기록하나요?

36장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약속

본장에서,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성전은 백성들의 눈앞에서 훼파되었고 성전 기구들과 그릇들이 다 바벨론에 약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바사 왕 ()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22-23절)

5월4일 토요일 

에스라 1장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에스라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식민지 국가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포용정책을 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꺼내 돌려준 것과, 백성들이 금, 은, 예물 등을 기쁘게 드린 것은 모두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2장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본장은 BC 538년, 1차 포로귀환자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70년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졌고, 또한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익숙함을 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귀환한 회중의 수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64절)

3장 번제를 드리고, 성전건축을 시작하다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무너진 옛 솔로몬 제단 터에서 각종 제물을 드리고, 성전 착공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랬을까요?

4장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성전건축이 본격화되자, 성전건축을 방해는 세력들이 나타나, 성전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다리오 제2년(BC 521)까지 14년동안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부르심대로 헌신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자 했으나 대적들은 가만히 앉아 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성전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린 대표적인 2명은 누구인가요?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이 교회의 협력자처럼 등장할 때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